

박람회 특집

재래닭을 조명한다

축산박람회장에 화려한 한국 재래닭 나온다

박람회 출품 재래닭 현황

1. 한국재래닭, 한국재래오골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래종은 한국재래닭과 한국재래오골계이다.

한국재래닭은 정의를 보면 한국의 재래닭은 한국재래닭(순계), 개량재래닭(종계), 실용재래닭(실용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재래오골계는 1980년 충남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아래진 오골계가 천연기념물 제 265호로 지정되었듯 연산 지역의 오골계가 순수 계통을 보존하고 있다.

2. 한국재종의 기원

우리나라에서의 닭의 사육은 약 2000년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닭의 유입경로는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도래하였거나 중국의 남부와 북부지방을 거쳐 유입되었다는 설이 있다.

오골계는 허준선생의 동의보감에 오골계의 약효가 자세히 기록돼 있는 사실로 미루어 조선 선조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1) 한국재래닭(순계)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육되어온 닭이며 근대에 다른 품종과 분리 사육되어온 것으로 몸이 가벼우며 날개는 강해서 나르는 힘이 풍부하다. 알을 품는 성질이 강하며 활발하며 부화된 병아리를 잘 기른다. 베은 적색, 단관이며 고기수염은 길며 목의 깃털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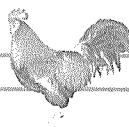
체중은 수컷이 2.4kg, 암컷은 1.9kg 내외이며 산란수는 175~180개 내외이다. 난형은 타원형으로서 난각색은 갈색이고 난중은 52g 내외이다. 근육은 기름이 적고, 비육이 잘 되지는 않지만 맛이 좋다. 이러한 재래닭에는 외모특징상 갈색종, 흑색종이 주종을 이루고 백색종과 은색종도 있다.

2) 개량재래닭(종계)

한국재래닭의 혈액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 2원 교배종을 말한다.

3) 실용재래닭(실용계)

한국재래닭의 혈액비율이 25% 이상 되어야 하는 3~4원 교배종을 말한다.



4) 한국오골계

한국 오골계의 가장 큰 특징은 깃털과 뼈가 겹다는 점이다. 오골계의 벗은 왕관(crown)형이며 검붉은 색을 띠고 있다. 암컷의 벗은 수컷보다 훨씬 작으나 모양은 수컷과 같다. 깃털은 청자색이 감도는 흑색이며, 가끔 흰색(白毛)이나 얼룩무늬(斑毛) 깃털을 입고 나오는 것도 있다.

순종 오골계를 고를 때 빼놓지 않고 확인해야 할 점이 발가락 수다. 순종 오골계의 발가락은 모두 4개다. 오골계는 성격이 예민하고 까다로워 사육에 어려움이 많다.

오골계는 일반 닭처럼 가두어 놓고 집단적으로 사육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오골계의 사육기간은 일반 닭보다 5배 정도 길다.

갓 태어난 병아리의 평균체중은 33g이며 한달을 키워도 평균체중이 1,300g(일반닭은 1,700g)정도 밖에 되지 안된다. 오골계는 생후 5개월부터 알(初卵)을 낳기 시작한다. 초란은 메추리알보다 약간 작은 크기이며 부화 가능한 크기가 되려면 어미닭의 나이가 8개월~1년은 되어야 한다.

암탉 성계는 1년 평균 100개 안팎의 알을 낳는다. 오골계 암탉은 일반 암탉과 달리 알을 잘 품고 모성애가 강하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보살피는 기간은 병아리의 홀로서기가 가능한 6~7주 사이다.

3. 한국재래닭 고품질 육용화 연구사업

우리나라 국민의 식성에 알맞은 닭고기 맛과 육질을 가지는 재래닭을 육종개발하여 농가소득 착목으로 산업화함으로써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대응하는 특수 축산물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자 농림부의 용역 연구사업으로 지난 1994년부터 1997년 까지 4년에 걸쳐 재래닭 고품질 육용화 연구사업



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농림부(서성배 축산정책과장), 서울대학(오봉국 명예교수), 축산연구소(정선부 소장), 충남대학(한성옥 교수), 고려대학(지규만 교수), 현인농원(홍승갑 사장), 대한양계협회(이규성 전무), 대한수의사회(박근식 부회장), 충청북도 농축산사업소(박종운 종축과장), 유병현(전 미원축산과학연구소 소장), 이인형(전 축산기술연구소 축산기술부 부장)이 참여한 재래닭고품질육용화사업추진협의회(회장 오봉국 박사)가 추진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오봉국 박사 외 25명(연인원 85명)으로 연구과제는 재래닭의 생산능력평가 및 품종기준 설정, 우량교배조합 선발 및 교배종의 사양관리 기준설정, 실용계 사양관리 체계확립 및 육질특성 구명, 재래닭 생산물의 소비행태에 관한 조사로 나누어졌다.

연구결과 육질이 우수한 재래닭 계통을 복원하여 현재 축산연구소에서 기초계 순종 확보 및 우수계통을 선발하여 유지하고, 일반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4. 한국재래종 양계·축산박람회 출품

한국재래종은 1991년 양계박람회부터 2005년



축산박람회까지 8회에 걸쳐 박람회에 출품되었다.

재래종의 박람회 출품으로 소비자에게 잊혀지지 않는 우리 전통닭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금까지 출품한 농가는 현인농원, GS농장(구 길산토종닭), 옥계농장, 축산연구소, 지산농원이 있다.



5. 한국재래종(순계) 사육농가

1990년대 210여개농가에서 1999년에는 순수 재래닭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20~30농가로 줄었고, 현재 사업성이 떨어져 10농가가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래오골계는 충남 논산 연산지역 천연기념물인 아래진 오골계를 들 수 있다. 아래진 오골계는 계통 보존을 위하여 순종이 아니거나 보통닭과 교배를 금지하고 500수 이상 확보가 안되면 임의처분이나 타 지역으로 분양할 수 없다.

현인농원



1997년 정부 재래닭 복원에 닭을 제공하기도 한 농가이다. 30년간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에서 순수 재래닭을 사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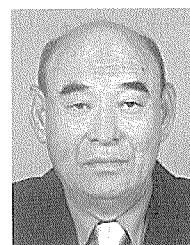
보유하고 있는 재래닭은 적갈색종, 황색종, 은색종, 백색종이 있다. 특히 황색종과 은색종의 종류가 2~3가지 세분할 수 있다. 현인농원 홍승갑 사장이 닭의 육종으로 색깔 작업을 하게 된 것은 고서적 동초강목에서 조선 중부닭 황계(목에 누런 깃털을 가진 평택닭)가 약효가 우수하다는 문언을 보고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 민화 속에 있는 닭을 재연하고

있다.

홍승갑 현인농원 사장의 재래닭의 사육방법은 독특하다. 평사에 수탉 1수에 암탉 5수로 사육한다. 먹이는 기초사료에 맥반석, 키토산, 활성탄을 배합하여 급이한다. 여기에 야산 주변에 자라고 있는 토착균(미생물)을 배양하여 먹이거나 뿌려준다. 이렇게 6개월 사육하면 닭이 건강하게 자라고 닭의 육질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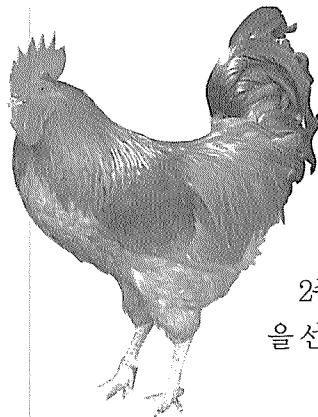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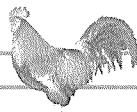
홍승갑 사장은 이번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05)에 황색(1호, 2호, 3호), 은계(1호, 2호), 적갈색, 흑색, 회백색 8종을 출품하였다.

GS농원



경남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에서 GS농장(길산토종닭)을 운영하고 있는 장상철 사장은 1960년부터 현재까지 재래닭 보존과 홍보에 노력해 오고 있다. 보유하는 재래닭은 적갈색종, 황갈색종, 흑갈색종, 갈색종이다.

장상철 사장은 1990년 12월 전국 농업 기술자 협회 주최로 열린 행사의 전국 농·특산물에 출품하여 한국 재래닭 부분 우수상을 받았고, 1991년부터 2003년까지 2년마다 개최되는 양계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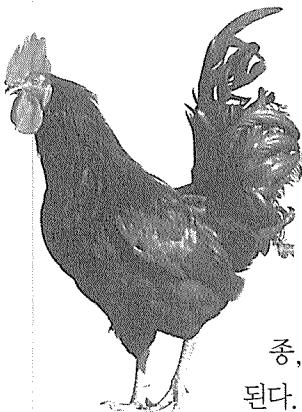
와 축산박람회에
재래닭 품종전
시 코너에 출
품하였다.

2005 한국국
제축산박람회에는
2종(황갈색종, 갈색종)
을 선보였다.

축산연구소

1999년 완료된 재래닭 고품질 육용화 사업을 통
하여 얻은 순계(한국재래닭 적갈색종, 황갈색종,
흑색종)를 축산연구소 축산자원개발부 가금과(과장 이덕수)에서 보존하고 있다. 축산연구소 최철
환 연구실장은 개량재래닭(종계)을 농림기술센터
를 통해 일반 양계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축산연
구소는 한국재래닭을 국내외에서 유전자원으로
인정받는 차원에서 동물(닭) 유전자원 등록을 추
진하고 있다. 향후 국내 특허법을 개정하여 동물
유전자원 특허 등록이 되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축산연구
소는 이번 2005 한
국국제축산박람회
를 통해서 한국산
재래닭을 국내외
적으로 널리 알리
는 계기로 삼고자
적갈색종, 황갈색
종, 흑색종을 전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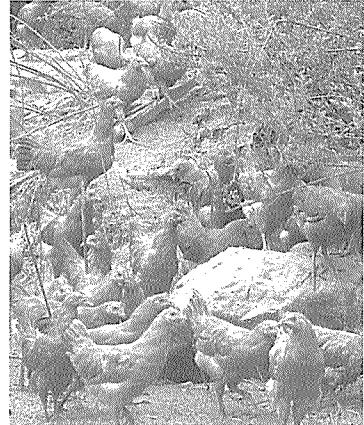
옥계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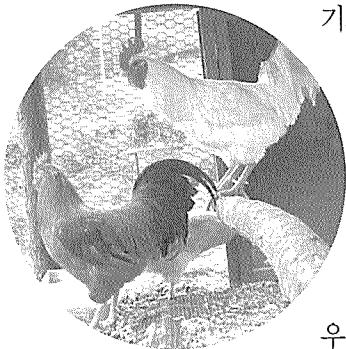


충북 옥천에서 옥계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김대현 사장.
김대현 사장은 80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옥천군수가 인정받
는 옥계(옥천지역 재래닭)를
15년간 사육하고 있다. 옥계
는 황갈색종과 흰색종이 있는데 황갈색이 주종을
이루고 흰색은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대현 사
장이 흰색 보존이유는 약용과 관상용이기 때문이
다. 동의보감에 임신 못한 사람이 흰닭의 며느리
발톱을 3번 삶아 복용하면 임신한다는 문헌이 있
기 때문이라고 한다.

재래닭 종계는 평사, 실용계는 5,000평에 달하
는 농장 주변 야산에 방사한다. 옥계는 방사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사료값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적게 들고 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아침, 저녁에
사료를 주고, 나머지는 야산에 가서 곤충류와 파
충류, 약초 등을 먹는다. 해가 기울면 닭들은 농장
주의 별다른 노력 없이 정해진 자리로 돌아온다.

옥계 판로는 가든이 주거래처이다. 재래닭의 맛
은 한번 먹어본 사람이라면 잊지 못한다는 것인
다. 그래서 옥
계농장의 닭
은 인근 가든
과 지방에서
큰 인기를 얻
고 있어서 판
로에는 걱정
이 없는 듯 보
였다. 그러나
최근 가든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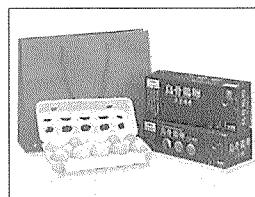
기가 침체 국면에 있어 수익이 감소하고 있어 보완책으로 방사란을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대현 사장은 우리나라 재래닭 보존이 일본과 같이 정부의 도움으로 일정 궤도에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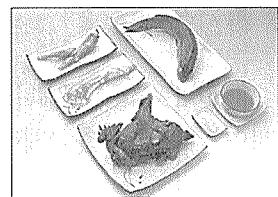
국가경쟁력은 그 나라별로 특화시킨 상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충북 괴산 단양은 흑색종이 원산지, 경기도 평택은 황색종이 원산지라고 한다. 이렇게 재래닭을 각도·색깔·특징을 고려하여 나누고, 생산량도 쿼터를 정해주되 판매는 생산자 단체, 농협, 행정기관이 맡는다면 재래닭 산업은 특화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대현 사장은 91년 초기 양계박람회부터 닭을 출품해 왔는데 이번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를 통하여 황갈색종과 흰색종을 출품한다.

재래닭이 서양의 개량종과 더불어 우리 국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김사장은 재래닭에 대한 홍보와 육종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골계알



용봉탕

이승숙 사장은 농장 홈페이지(www.ogolgye.com)에서 오골계와 관련된 자료로는 연산에 사는 통정대부(通政大夫, 도지사급) 이형흡(李亨欽)이라는 사람이 25대 철종 임금께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조 19대 숙종 임금이 중병을 앓던 중 연산오골계를 드시고 건강을 회복한 후부터 충청 지방의 특산품으로 해마다 임금님께 진상되었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온다고 밝혔다.

이승숙 사장은 오골계 선호하는 소비자를 위해 오골계 선물 셋트, 오골계알, 오골계 육즙, 오골계 초란 등을 판매하고 있고, 식당에서는 탕류, 백숙류, 약선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故 이래진 사장과 이승숙 사장이 매번 박람회에 오골계를 출품하여 왔는데 이번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서 출품되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정리 | 김종준 과장)

지산농원



지산농원은 조선시대부터 충남 논산시 연산지역에서 대대로 오골계를 사육해 오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故이래진 사장에 이어 이승숙 사장이 가업을 잇고 있다.